

장성, 민주당 경선 4파전...진도, 현군수 사법리스크 '관건'

장성군수

김한중, 재선 도전...안정적 군정 운영 평가
도의원·부군수 등 민주당 입지자 출사표
김왕근 혁신당 후보 출마 땀 본선 대결



김한중



김왕근



박노원



소영호



유성수

내년 장성군수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결과가 사실상 결선과 다를 없다는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현직 군수를 비롯해 4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입지자가 당내 경선에서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한중(71) 현 군수는 재선 행보에 나선 상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권을 따내고 군수직을 제한 김 군수는 재선을 위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도의회 의장을 지낸 3선 도의원 출신으로, 오랜 정치 경력을 발판 삼아 군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약자 출신인 유성수(57) 전 전남도의회도 표밭을 다지고 있다. 유 전 도의원은 장성군 약사회 분회장, 초·중학교 운영위원장, 장성군 소상공인회 초대 회장 등을 역임해 인지도가 높다는 평가다. 유 전 도의원은 전북(김제) 출생이지만, 장성군에 30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 '진짜 장성 사람'을 강조하고 있다. 앞선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는 김한중 현 군수와 공천권을 다퉈다. 마찬가지로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던 박노원(55) 전 장성군 부군수도 명예회복에 나선다. 지방고시 출신으로 장성군 부군수와 행정안전부 사회혁신추진단 과장을 역임하고 대통령비

서실 행정관을 지낸 박 전 부군수는 다양한 공직 경험과 참신한 이미지를 앞세우고 있다. 소영호(56) 전 전남도전략산업국장도 장성군수에 도전장을 냈다. 지방고시 출신으로 장성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소 전 국장은 30여 년 행정경험과 폭 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조국혁신당 후보로는 김왕근(57)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성군협의회회장의 출마가 예상된다. 김 전 회장은 치과 의사 출신으로, 조국혁신당 전남도당 부위원장 겸 보건복지위원직을 맡고 있다. 내년 장성군수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성군수 선거는 김왕근 전 회장의 완주 여부에 따라 2파전 혹은 민주당 공천권을 따낸 후보자의 무투표 당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진도군수

김희수, 민주당에 입당해 재선 도전
전·현직 도의원들 정치 경험 앞세워 출마
혁신당, 지역위 출범...후보 적임자 물색



김희수



김인정



김희동



이재각

진도군수 선거는 김희수(70) 현 군수의 재선에 맞서 지역 정치인들이 도전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김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진도군 최초로 '무소속' 신분으로 진도군수에 당선됐다. 군수 도전 4수 끝에 군정을 이끌고 있는 김 군수는 36년 간 진도군청 근무 경험을 토대로 군정을 원활히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당내 경선에서 현직 '프리미엄'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사법 리스크'가 걸림돌이다. 김 군수는 2023년 측근 사업가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근 불구속 송치됐다. 또다른 혐의(직권남용)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두 사안 모두 내년도 지방 선거 전까지 유·무죄 판단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어, 사법 리스크가 당내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초미의 관심사다. 김 군수에 맞서 이재각(63) 전 충북지방병무청장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이 전 청장은 절차부심 재도전에 나선다. 이 전 청장은 예비

역 장성(준장)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활동 중이다. 전·현직 도의원들도 진도군수에 출사표를 던졌다. 김인정(65) 전남도의회원은 6·7·8대 진도군의회원과 군의회 의장을 지낸 토박이 정치인이다. 기초, 광역을 아우르는 정치 경험을 토대로 진도 군정 발전의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다. 제 11대 전남도의회를 지낸 김희동(74) 의원도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진도군청 기획예산실장과 진도읍장, 임해면장 등 30여년의 오랜 공직 생활과 광역의원을 지내는 등 지역 사정에 밝다는 평가다. 조국혁신당이 지난달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회를 출범하고 진도군수 후보 적임자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김 현 군수가 조국혁신당 입당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광주시, 도심융합특구에 의료·바이오 기업 첫 유치

씨젠의료재단과 협약

광주시가 상무지구 일원 '도심융합특구'에 첫 입주 기업을 확정하며 사업 속도를 끌어올렸다. 시는 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씨젠의료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특구 내 부지 투자와 행정 지원에 합의했다. 협약에 따라 재단은 9900여㎡(3000여평) 규모의 부지에 의료·바이오 관련 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인허가 신속 처리와 기반시설 지원, 국·공유지 사유료 및 개발부담금 감면 등 행정적 뒷받침을 제공한다. 시는 협약 체결 기업에 대해 용지 분양 시 우선 입주권을 부여해 초기 앵커 기업의 조기 정착을 돕는다.

이날 행사에는 고광완 행정부시장과 박창수 광주호남검사센터 대표원장이 참석해 "청년이 머물고 기업이 성장하는 특구"라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1990년 설립된 씨젠의료재단은 국내 최대 규모의 임상검사 전문기관으로, 특히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 진단키트 개발과 공급으로 세계적인 인지도를 확보한 바 있다. 시는 의료·바이오를 선도 업종으로 세우고, 특구 내 기업 집적을 통해 연구·제조·서비스를 잇는 가치사슬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상무지구 일원 85만㎡ 부지에 산업·주거·문화 기능을 고밀도로 결합해 일자리와 주거, 여가가 공존하는 '직주락' 도시공간을 구현하는 프로젝트다.

지자체 간 과열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조율과 절차 마련을 적극 건의하고 구레가 최지지임을 지속해서 알리면서 구레군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정책 비전 투어에서는 전남연구원이 지리산·섬진강과 같은 생태·경관 자원, 화엄사를 비롯한 역사문화 자원 등 구레군이 가진 발전 잠재력을 토대로 한 지리산 명품 관광벨트 등 미래 지역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지방정가 라운지

“광주시 산하기관 ‘쪼개기 근로계약’ 근절해야”

채은지 시의원 대책 요구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거나 상시·지속 업무를 임시직으로 둔갑시키기 위한 '쪼개기 근로계약' 관행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채은지(비례) 시의원은 6일 광주 전략추진단 행정감사에서 "2025년 시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643명 중 9개월 계약자가 132명, 11개월 계약자가 171명에 달한다"며 "300명이 넘는 노동자가 불공정한 계약 상태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이러한 계약 행태가 명백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11개월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근무 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명백한 회피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9개월 계약 역시 연중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등을 피하며 비정규직으로 운용하려는 편법적 방식"이라고 질타했다. 이러한 쪼개기 계약 관행은 공공기관의 노동권 침해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채 의원은 "쪼개는 계약 단절로 인해 노동자들은 4대 보험과 경력이 끊기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숙련된 인력이 지속적으로 이탈하면서 결국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서



비스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부작용을 경고했다. 그는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노동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 의원은 광주시에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시 전체 산하기관의 인사·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불필요한 1년 미만 계약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를 엄격히 제한하는 관리지침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이 먼저 모범을 보여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미라 광주시 전략추진단장은 "기간제 근로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과 불공정한 인사관리 관행 등의 문제점을 깊이 인지하고 있다"고 수긍했다. 다만 윤 단장은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시 재정 운용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전남도,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돕는다

전남도가 구례군의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전남도는 6일 구례군에서 '정척 비전 투어'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순호 구례군수는 "구레가 보유한 지리산과 섬진강은 어느 국가도 가지지 못한 독보적인 생태 경관이자 자연 자원"이라며 "이를 활용한

핵심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인 만큼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김영의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추진위원장 또한 "지리산 국립공원 환경 복원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영·호남에 각각 1개씩 케이블카 설치가 승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에 대해 "지역 숙원사업인

지리산 케이블카는 환경부 주관으로 논의됐으나 지자체 간 과열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조율과 절차 마련을 적극 건의하고 구레가 최지지임을 지속해서 알리면서 구레군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정책 비전 투어에서는 전남연구원이 지리산·섬진강과 같은 생태·경관 자원, 화엄사를 비롯한 역사문화 자원 등 구레군이 가진 발전 잠재력을 토대로 한 지리산 명품 관광벨트 등 미래 지역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